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대신정보통신(020180)

컴퓨터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병찬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2.13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 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정보통신(02018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전문 SI 기업

기업정보(2022/03/31 기준)

대표자	이재원, 최현택
설립일자	1987년 08월 28일
상장일자	1995년 10월 06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주요제품	시스템 통합(SI) 솔루션 모바일 디바이스(PDA)

시세정보(2022/04/11 기준)

현재가	1,725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663억 원
발행주식수	38,428,915주
52주 최고가	3,265원
52주 최저가	1,000원
외국인지분율	1.11%
주요주주	
이재원	6.83%
양희경	3.37%
양미경	3.06%
최현택	1.51%
이용희	0.07%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SI 사업 영위

대신정보통신(이하 동사)은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합 솔루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등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사업과 보안솔루션 사업, 산업용 PDA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SI 사업이 동사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동사는 창사 이래 공공, 국방,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과 같은 공공기관 등에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전문 SI 기업으로서 성장 중이다.

■ 공공부문의 IT 수요로 연간 2천억 원 내외의 매출 외형 유지

동사 주요 사업인 SI 사업은 매출 거래처 대부분이 공공기관임에 따라,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이 시장규모를 결정하고, 동사의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공공기관 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입찰이 제한되면서 시장 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자유로워져 시장 경쟁 강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동사는 신규수주액 기준, 2019년 3월 말 370억 원, 2020년 3월 말 767억 원, 2021년 3월 말 88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점진인 확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과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3회계연도 간 2천억 원 내외의 매출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증가와 안정적인 수주 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최근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4조 814억 원이었던 정보화 예산이 2021년에는 4조 9,42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트렌드가 이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는 한, 매년 꾸준한 신규 수주 확보와 함께 동사 매출 역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사는 2022년 상반기에만 2,6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기준)

구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03	2,075.1	22.0	17.8	0.9	15.6	0.8	6.4	2.4	145.4	41	649	33.1	2.1
2020.03	1,758.6	-15.3	21.1	1.2	15.1	0.9	5.9	2.1	216.7	39	678	24.2	1.4
2021.03	1,937.5	10.2	23.4	1.2	16.9	0.9	6.3	2.2	157.8	44	712	44.6	2.8

기업경쟁력

다양한 산업 분야의 레퍼런스 보유

- 공공, 국방,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SI 솔루션 구축 레퍼런스 보유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과 같은 공공기관에 ICT 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 이력 보유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기술력과 전문성 보유

- 최신 IT기술인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기술력 확보
- 클라우드 방법론,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통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SI 솔루션과 PDA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

- 시스템 구축, SW개발, HW상품, 기타IT로 구성된 SI 솔루션 사업 영위
- 업무 현장에서 모바일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용 PDA 판매 사업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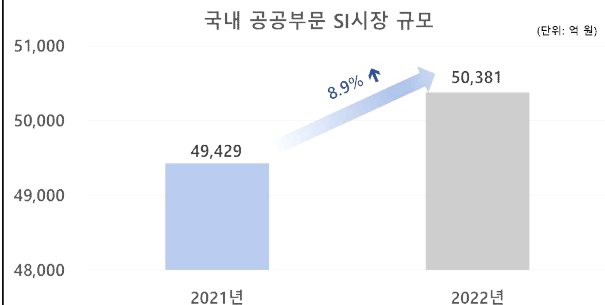
[동사 제공 서비스]

사업	구분	세부 설명	비중
시스템 통합 (SI)	시스템 구축	ICT 인프라, 정보시스템	35.8%
	SW개발	금융SW, 모바일SW	1.5%
	HW상품	보안장비 조달/유통총판	28.4%
	기타IT	유지보수, 통합관제	30.4%
모바일 디바이스	산업용 PDA 판매 사업	3.6%	
부동산 임대	사무실 임대 사업	0.3%	
합계			100%

시장경쟁력

국내 공공부문 SI 시장은 5조 원대 규모 예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SW·IT사업 수요예보를 발표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2,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2021년 4조 9,429억 원 대비 8.9% 증가한 5조 381억 원으로 집계



[국내 공공부문 SI 시장규모]
(출처: SW·IT산업정보시스템(2021), NICE디엔비 재구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임직원의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임직원 모두 퇴근 후 전등을 소등하고 노후화된 전자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근무환경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직원편의 시설인 사내식당을 통해 임직원의 영양관리와 함께 식대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남성출산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동사는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GS인증을 획득하여 동사의 제품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동사는 배당금 제도 및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주주친화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I. 기업현황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SI 사업 영위

동사는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전문 SI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통해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용 클라우드 구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합 솔루션, 금융 IT 서비스,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 SI 사업과 보안솔루션 사업, 산업용 PDA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1987년 8월 설립되어 1995년 10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동사는 최초 (주)대신전산센터로 설립되었으나, 1992년 9월 현재의 (주)대신정보통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CMMi L3(SW프로세스 품질) 인증,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인증, GS(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등의 인증실적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고용노동부), 수출 500만불탑 등의 수상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창사 이래 공공, 국방,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시스템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소방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다수 국내 기업들에게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IT기술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전문 SI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 주요 주주

동사 분기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재원 대표이사(각자대표)로 총 6.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각자대표인 최현택 대표이사가 1.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재원 대표이사 특수관계자인 양회경 외 5인이 총 6.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 지분은 이처럼 각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총 14.9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표 1]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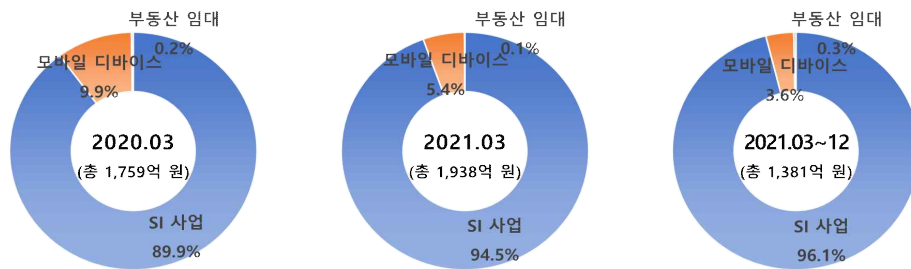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이재원	본인	2,625,682	6.83
양회경	특수관계인	1,295,000	3.37
양미경	특수관계인	1,176,721	3.06
최현택	각자대표	580,000	1.51
이용희	특수관계인	26,500	0.07
이정은	특수관계인	10,000	0.03
이효민	특수관계인	10,000	0.03
합계	-	5,723,903	14.9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사업 분야 및 매출 비중

동사의 사업은 시스템 구축, SW개발, HW상품(보안솔루션), 기타IT 서비스로 구성된 SI 사업과 산업용 PDA 단말기 사업인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 부동산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1년 3분기 누적 SI 사업이 전체 매출의 96.1%를 차지하여 동사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은 각각 3.6%, 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사업 분야별 매출 비중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SI 사업 중 시스템 구축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ICT 인프라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클라우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시스템 구축은 SI 사업 중에서도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누적) 기준 35.8%를 기록하였다. SW개발은 금융SW나 모바일SW 개발 사업을 말하며, HW상품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웹 보안 장비 등의 조달 및 유통 총판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3분기(누적) 기준, 각각 1.5%와 28.4%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기타IT 서비스는 동사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통합관제 사업을 말하고, 점유율은 30.4%이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동사 주요사업 소개

(단위: 억 원, %,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업부문	구분	세부 설명	매출액(비중)
시스템통합 (SI)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ICT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클라우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	495.1(35.8)
	SW개발	금융SW, 모바일SW 개발 사업	21.3(1.5)
	HW상품	네트워크 보안, 웹 보안, DB보안, 서버보안 장비들의 조달 총판/유통 총판 사업	391.8(28.4)
	기타IT	기업에 구축된 ICT 인프라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통합관제, 회선임대 사업	418.8(30.4)
모바일 디바이스	업무 현장에서 모바일 업무를 지원하는 산업용 PDA 판매 사업	50.2(3.6)	
부동산 임대	사무실 임대 사업	4.1(0.3)	
합계			1,381.3(100.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사업 영업구조 및 판매전략

동사 SI 사업은 직판영업조직으로 되어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은 직판영업과 유통영업이 혼재되어 있다. 직판영업은 시스템, 네트워크, 솔루션 등 IT인프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영업대표가 각 고객별 수주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이며, 유통영업은 영업담당자가 협력사 관리를 통해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판매경로는 직판영업의 경우, 고객에게 직접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유통영업의 경우 협력사를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사는 SI 사업부문과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부문에 대해 각각의 판매전략을 보유하고 있는데, SI 사업부문은 IT 서비스를 솔루션 중심에서 공공정보화 사업,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하는 것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중심의 서비스 개발 등을 주요 판매전략으로 하고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 사업부문은 PDA 품질경쟁력 확보와 판매망 구축 등을 주요 판매전략으로 하고 있다.

[표 3] 동사 제품의 주요 판매전략

사업부문	판매전략
시스템 통합 (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기간 준수 및 고객 기반 확충 • IT서비스를 솔루션 중심에서 공공정보화 사업,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 기존상품의 통합, 보유상품의 패키지화 및 파생 상품의 시장선점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모바일 디바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A 품질경쟁력 확보 • 보유 상품 라인업 확대 • 판매망 구축 및 우수딜러 확보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도입한 동사의 SI 솔루션

동사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공공 및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I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사의 SI 솔루션은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객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다수의 레퍼런스에서 쌓은 노하우를 접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

동사의 SI 솔루션은 공공 IT 서비스, 금융 IT 서비스, IDC(Internet Data Center) 구축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 이 중, 공공 IT 서비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하기관, 지자체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 IT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일반 행정 서비스, 디지털 의회 실현을 위한 전자 의회시스템, 국가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사업 등 주로 국가 정보화 사업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정보보호 시스템 및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우편물류서비스 및 헬기위치 추적체계, 디지털발간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금융 IT 서비스는 대면채널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에서 비대면, 디지털 금융 도입과 최신 IT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을 접목한 금융 환경 조성 서비스를 말한다. 당사는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국내외 유가증권 관련 상품들의 운용 관리를 지원하는 자산운용 시스템, eTravis2.0을 서비스로서 제공 중이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고 반영한 ALM시스템, 위험관리시스템, IFRS시스템 등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금융 시스템 등도 제공하고 있다.

IDC 구축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IT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활동의 안정성 제공이 목적이다. 당사는 공공분야, 민간 분야의 IDC 및 DR (Disaster Recovery) 센터 구축을 위해 SDN(Software Define Network), SDDC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그린 IT 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술 경쟁력과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동사의 SI 솔루션은 공공 IT 서비스, 금융 IT 서비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서비스, 보안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현재 SI 솔루션으로서 총 8가지 사업영역을 통해 30여 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레퍼런스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동사가 보유한 SI 솔루션 레퍼런스

사업 영역	주요 레퍼런스
공공 IT 서비스	
금융 IT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IDC 구축 서비스	
사물인터넷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보안 서비스	
ITO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클라우드 방법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동사는 공공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부터 이전 등 핵심 시스템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까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맞춤형 End-to-End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디지털 서비스는 고객 비즈니스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업무환경 맞춤형 클라우드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Migration), IaaS(Infra as a Service) 등으로 기존 업무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 전환 시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호환성 검증, 다수의 리허설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기법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게는 IT 자원의 손실 없이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환경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클라우드 실행계획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사의 클라우드 실행계획 및 솔루션은 클라우드 컨설팅 방법론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기반한다. 클라우드 컨설팅 방법론이란 고객의 클라우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수요조사, 현황 및 환경분석, 목표모델 정의, 비용분석의 프로세스로 되어있고, 아키텍처 정의서, 이행계획서 등 솔루션 검증과 컨설팅을 위한 핵심문서들을 산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동사의 클라우드 컨설팅 방법론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은 Assessmnet, Planning, Rehearsal, Cut-over 과정을 통해 이행계획서, 테스트 결과서를 산출하고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론이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은 동사의 디지털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전용 툴인 zConverter Cloud Migration으로 운영서버의 재부팅 없는 서비스 제공, 다운타임이 거의 없는 시스템 구현, 운영체제/어플리케이션 재설치 없는 클라우드 서버 마이그레이션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4] 동사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정보보호 업계 1위 제조사와 협업을 통한 통합 보안솔루션 제공

급격한 IT 환경 변화와 함께 정보서비스 인프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위협과 공격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축적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솔루션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보안솔루션 제공은 동사 SI 사업 중 하나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형태로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며, 정보보호 시장에서 각 분야 1위를 유지 중인 시큐아이, 펜타시큐리티, 지니언스와 같은 보안솔루션 제조사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동사의 보안 솔루션은 크게 구분하면, 보안관리체계 ISP 수립, SI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솔루션 제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서비스로는 보안 인프라 진단,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보안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방화벽, VPN, IPS, SSL 보안솔루션 구축이 있다.

[그림 5] 동사가 제공하는 보안솔루션 및 협력사(예시)

구분	제품 이미지	제조사	내용	비고
네트워크 보안		SECUI	방화벽/IPS/DDoS/LMS/WIPS	조달 총판/유통 총판
네트워크 / 엔드포인트 보안		Genians	NAC/EDR/GPI	유통 총판
웹 보안		Panta SECURITY	웹방화벽/DB보안/SSO	조달 총판/유통 총판
DB 보안		Ware Valley	DB접근제어/DB암호화/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조달 총판/유통 총판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2022년 국내 공공부문 SI 시장은 5조 381억 원 규모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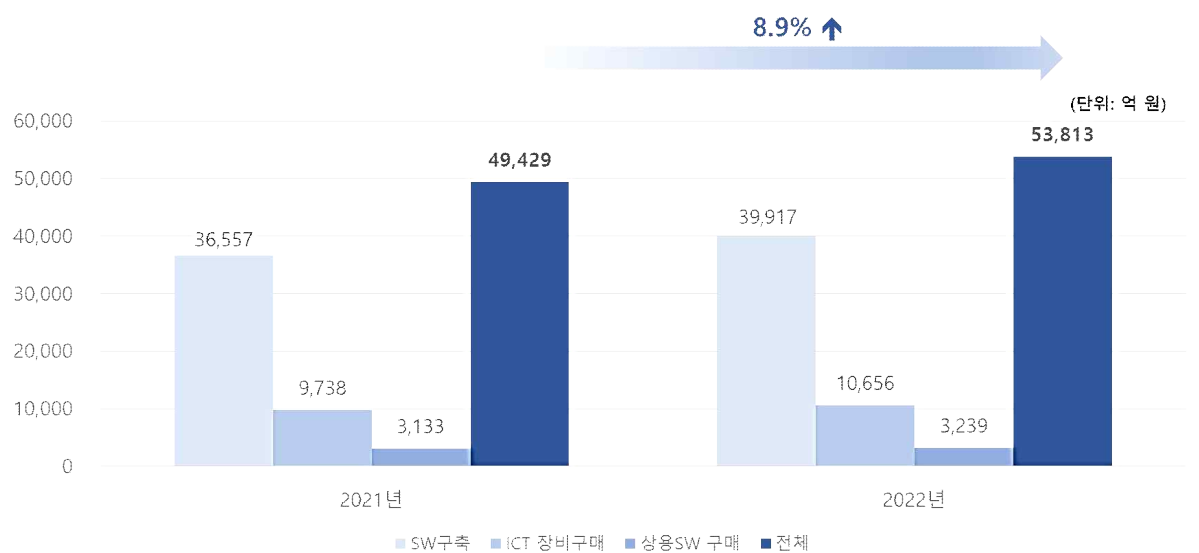
SI 시장은 사용자의 환경과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컨설팅, 분석, 설계, 개발 및 유지보수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의 시장이다. SI는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국가의 정보화 확산을 위한 견인역할과 동시에 산업 전반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국가 산업으로서 중점 육성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관산업인 IT는 모든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화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정보화가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수준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IT산업의 핵심인 SI는 그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시장과 함께 성장 중이다.

또한, 국내 SW시장은 패키지 SW, IT 서비스 등 전통 사업의 영역 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스마트카,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주된 이슈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SI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SW·IT사업 수요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2,2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수요예보 발표에 의하면, SW사업 추진계획, ICT 장비 및 상용 SW 구매 등에 소요되는 2022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2021년 4조 9,429억 원 대비 8.9% 증가한 5조 38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이 공공기관, 지자체인 점을 고려하면, 동사 매출 역시 해당 발표자료에 따라 증대될 가능성 역시 높게 전망되는 부분이다.

[그림 6]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추이(2021~2022)



*출처: SW·IT산업정보시스템(2021),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현황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은 시스템 통합(SI), 네트워크 및 통신 사업, SW/HW 개발 및 판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IT 기업으로 1981년 12월 설립되어 2000년 4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쌍용정보통신은 근래 전통적인 SI를 담당하는 공공부문과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부문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2021년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고,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SI 사업을 위한 CNA 그룹과 MSP 사업을 위한 SRE 조직을 통해 EBS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등의 실적을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2021년 매출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52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4억 원과 2억 원을 기록하였다.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은 SM 사업과 SI 사업을 영위하는 IT 기업으로 2017년 11월 설립되어 2018년 7월 코스닥 상장하였다. 롯데정보통신은 주로 롯데 그룹 내 유통, 식품, 화학, 등 다양한 산업군의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SM 사업과 시스템 통합, SW/HW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SI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최근에는 메타버스 자회사 칼리버스와 함께 메타버스 보안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의 계획을 보였다. 롯데정보통신은 차세대 사업으로서 플랫폼 개발과 함께 구축 환경의 취약점 점검 등 메타버스 방향성과 기술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매출은 9,126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08억 원과 351억 원을 기록하였다.

■ 동사의 SWOT 분석

[그림 7]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과 정보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물질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는 무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 특성상 환경(E) 부문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임직원의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임직원 모두 퇴근 후 전등을 소등하는 등의 근무환경 내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사내에 휴게실을 확보하여 임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원편의 시설인 사내식당을 통해 임직원의 영양관리와 함께 식대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남성출산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동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동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사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2020년 83백만 원, 2021년 70백만 원을 사용하며 지역사회, 청년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동사는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GS인증을 획득하여 동사의 제품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동사 분기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는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약 9.8%로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평균인 23.1%를 하회하고 있고,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 수준 역시 약 69.7%로 산업평균인 76.1%를 하회하고 있다. 반면,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율은 75.3%로 산업평균인 73.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507	-	507	4.3	7.9	36	63
여	55	-	55	3.2	5.8	25	48
합계	562	-	562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할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더불어, 동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동사 분기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사의 지분구조는 최대주주인 이재원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6.83%이며,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사는 주주 친화활동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도와 배당금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0.8%이다.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6.83
사내/사외/감사	2/1/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76.16
사외이사 재직기간	2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0.8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공공부문의 IT 수요 기반으로 연간 2천억 원 내외의 매출 외형 유지

동사는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공공부문 IT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시장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매년 신규수주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2천억 원 내외의 매출 외형을 지속하고 있다.

■ 공공부문 IT시장의 ICT 구축 및 유지관리 분야가 주력사업

동사는 시스템 구축, SW개발 등의 S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로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ICT 인프라 구축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등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용 PDA를 생산하여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2021회계연도(2021.03) 기준 각 사업별 매출비중은 시스템통합 94.5%, 모바일디바이스 5.4%, 부동산임대 0.1%이다.

모바일디바이스 부문의 경우 해외 수출을 병행하고 있어 전사적으로 수출 매출도 발생하고 있지만 2021회계연도(2021.03) 기준 1.5%가량으로 크지 않아 내수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속적인 신규수주에 힘입어 연간 2천억 원 내외의 외형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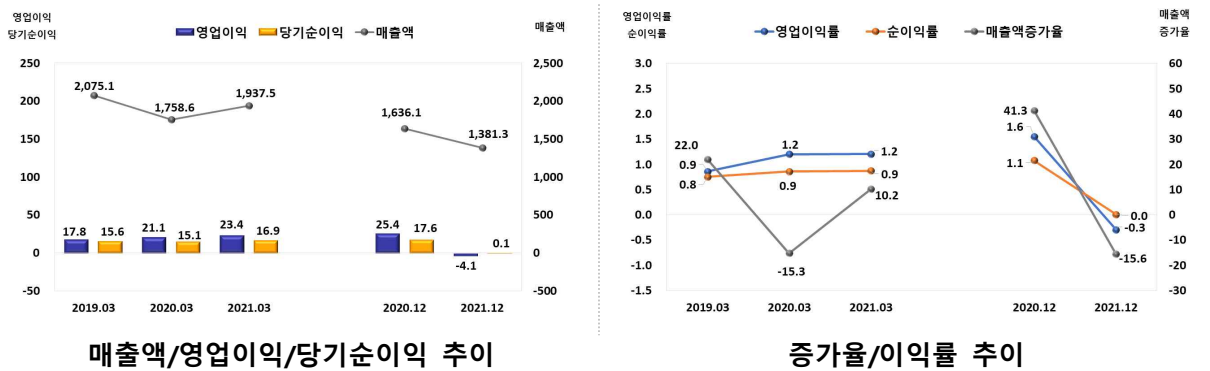
동사 주요 사업인 SI 사업은 매출 거래처 대부분이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결정되며, 동사의 매출액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 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자유로워 경쟁 강도는 높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매년 입찰 실적에 따라 매출액이 변동하고 있다. 다만, 신규수주액 2019년 3월 말 370억 원, 2020년 3월 말 767억 원, 2021년 3월 말 882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3회계연도 간 2천억 원 내외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1회계연도(2021.03) 매출액은 전기 대비 10.2% 증가한 1,937.5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2021년 3분기(2021.12) 누적 매출액은 1,381.3억 원으로 전기 동기간 대비 15.6% 감소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총매출의 7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무난한 수준이다.

■ 높은 매출원가 부담에도 흑자경영 지속

사업부문별 매출원가율은 2021회계연도 기준 시스템통합 81.8%, 모바일디바이스 287.0%, 부동산임대 164.8% 등으로 주요 사업 부문을 제외한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인 시스템통합 부문의 법인세차감전 매출액순이익률이 1.3%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 3회계연도 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9회계연도 0.9%, 2020회계연도 1.2%, 2021회계연도 1.2%로 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영업외수지도 적자 기조이나, 미미한 수준으로 흑자경영을 지속 중이다. 아울러, 매출액순이익률은 2019회계연도 0.8%, 2020회계연도 0.9%, 2021회계연도 0.9%를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2021.12월 누적 매출액이 전기 동분기 대비 감소함에 따라 전체 매출원가율이 상승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0.3%를 기록 및 소폭의 적자를 나타냈고, 외환차익, 잡이익 등 일시적으로 영업외수익 증가하며 상기 영업손실을 보전하여, 매출액순이익률은 미미한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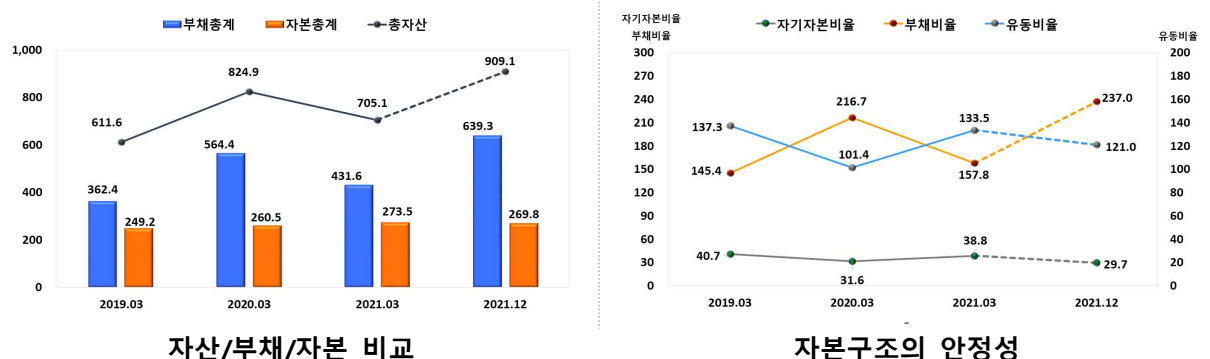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03),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부채 대부분이 매입채무 등 비차입성 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차입부담 낮은 수준

동사는 유동부채가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부채 중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의 비율이 2019회계연도 57.9%, 2020회계연도 71.4%, 2021회계연도 79.7%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사는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가 부채총계 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준으로 파악되나, 부채총계 대부분 정상 영업주기 내 소멸되는 비차입성 부채이고, 2021년 3월 말 차입금의존도 14.2%로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구조 압박, 이자비용 등의 차입비용은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03),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2020회계연도 대비 2021회계연도 말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가 53.1% 감소하면서, 전체 부채총계도 감소하였는 바, 2020년 3월 말 부채비율 216.7%, 유동비율 101.4% 등으로 다소 열위하였던 재무안정성은 2021년 3월 말 부채비율 157.8%, 유동비율 133.5% 등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2021년 12월 말 부채비율 237.0%, 유동비율 121.0% 등으로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가 다시 확대되며 2021.12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시 악화되었다.

■ 경쟁사 분석

동사의 동종업체로는 쌍용정보통신(주)와 롯데정보통신(주)가 있다.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2021회계연도 별도 기준 1,938억 원을 기록하였고, 2021년 별도 기준 쌍용정보통신(주)가 2,052억 원, 롯데정보통신(주)가 9,126억 원으로 롯데정보통신(주)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2%, 쌍용정보통신(주)가 2.6%, 롯데정보통신(주)가 4.5%로 수익성 역시 롯데정보통신(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0.12	2021.12
매출액	2,075.1	1,758.6	1,937.5	1,636.1	1,381.3
매출액증가율(%)	22.0	-15.3	10.2	41.3	-15.6
영업이익	17.8	21.1	23.4	25.4	-4.1
영업이익률(%)	0.9	1.2	1.2	1.6	-0.3
순이익	15.6	15.1	16.9	17.6	0.1
순이익률(%)	0.8	0.9	0.9	1.1	0.0
부채총계	362.4	564.4	431.6	731.5	639.3
자본총계	249.2	260.5	273.5	274.2	269.8
총자산	611.6	824.9	705.1	1,005.7	909.1
유동비율(%)	137.3	101.4	133.5	116.8	121.0
부채비율(%)	145.4	216.7	157.8	266.8	237.0
자기자본비율(%)	40.7	31.6	38.8	27.3	29.7
영업현금흐름	6.2	81.2	82.6	265.2	91.4
투자현금흐름	4.7	-10.8	-50.5	-40.3	-19.7
재무현금흐름	-4.3	-5.2	-5.0	1.9	-118.6
기말 현금	114.7	179.9	207.0	406.7	278.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03), 동사 분기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무성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증가와 2,600억 원 이상의 사업 수주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수주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에 주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경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당사는 연평균 매출액을 뛰어넘는 계약액을 확보하였다.

■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호적 산업환경 조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4조 814억 원이었던 정보화 예산은 2020년 4조 7,890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1년에는 4조 9,429억 원을 기록하여 평균 10.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편성 트렌드가 이와 같은 흐름을 유지하는 한, 매년 꾸준한 신규 수주 확보와 함께 매출 역시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에게 우호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 2022년 상반기 누적 2,600억 원 이상의 사업 수주

2022년 1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주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센터 정보시스템 1, 2군 운영·유지관리 사업과 보안통신 인프라 운영·유지관리사업, 클라우드 운영·유지관리사업을 모두 수주한데 이어 최근 평가가 이뤄진 대전 센터 4개 사업 중 3개 사업도 주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형태로 수주했다. 7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약 2,412억 원으로, 당사의 연평균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3월 공시에 따르면, 당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보안통신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총계약액: 125.2억 원, 납품기간: 2023.12.31.) 과 클라우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총계약액 137.7억 원, 납품기간: 2023.12.31) 등 총 2건의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2건의 신규계약은 당사가 대표사업자로서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계약에 의하면, 당사의 지분율은 50%임에 따라, 계약액은 총 262.9억 원 규모이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0]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03월 31일)